

강를 ...

나는 나다운가?



주목성 신부
(서학동 주임)

예수님의 하느님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확인되는가?

신약성서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행적, 가르침의 내용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그 분이 오시기로 되어있던 메시아시며 참 하

느님이심을 선포한다. 그분이 범상한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하느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권위있는 가르침과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먹거리로 내어주시는 성체의 신비를 통해 드러난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몸과 피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먹거리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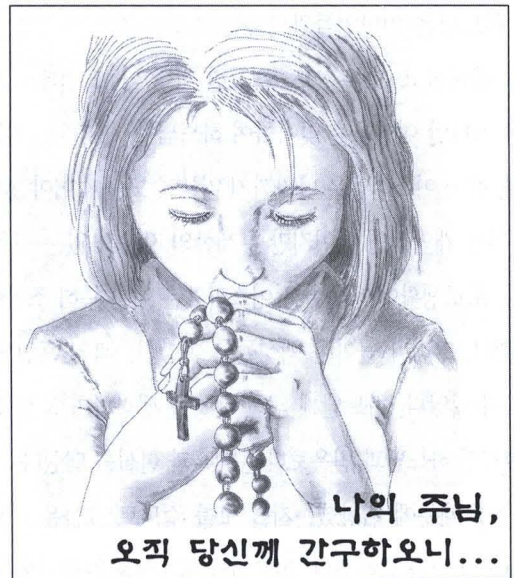
설령 내어 놓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예수께서 참 하느님다운 행적과 하느님다운 성사를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길ियो 진리요 생명' 으로서의 하느님다운 모습을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보이신 때문이다. 그분이 인간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나는 참으로 나다운 모습을 보이며, 나답게 살고 있는가?

벨기에의 수에넨스 추기경은 '가톨릭 신자 의사는 의사이면서 신자인가, 아니면 신자이면서 의사인 것인가?

고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의사인 동시에 가톨릭 신자인 것은 같지만 어느 쪽에 강조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됨을 말한다. 추기경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는 간판을 하나 덧붙인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어떻게 자기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다. '나는 그 무엇이기에 이전에, 가톨릭 신자라는 신분에 얼마나 충실을 기하고 있는가?' 고 스스로 묻고, 나다운 모습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오늘 성체로 오시는 주님께서 물으신다. '너는 너다운 모습으로 나가 되어가고 있는나?'

숲머리 생각



문정섭
(베드로)

통혼의 파기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이 땅의 못 족속들과 손을 끊고 외국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오.”모인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에즈 10,11)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함에 있어 혼인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종교적 불일치는 분란을 가져오고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이 없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하느님은 이방인들과의 혼



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느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키를 넘었고 우리의 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이스라엘에 돌아온 마당에까지 죄를 지어 하느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동안의 노력도 다 허사다. 에즈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이 땅의 못

인을 금하셨고 여호수아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상들은 가나안 여인들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까지 잃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혼인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를 특히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생각하며 조심할 일이었지만 하느님과 믿음보다는 매혹과 현실을 택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귀향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들은 빠르게 현실적인 길을 택해갔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급기야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명예가 되고 말았다.

에즈라는 옷을 찢으며 울면서 기도하였다. “하느님, 부끄

족속들과 손을 끊고 외국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오.” 모든 통혼관계를 청산하라는 에즈라의 간절한 호소였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외국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인을 내보내야 했다. 신앙으로 인한 결단이었지만 쓰라림이 참으로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어 이 통혼 파기운동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생존의 결단을 내린 에즈라의 업적은 위대했다. 하느님 때문이라면 처자식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아픈 체험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엔 너무도 진지했다. 사람에게 때론 이런 면도 있어야 하리라.

‘수오리’를 아시나요

머지 않아서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 등 124위의 순교자와 증거자인 최양업 신부 등 125위가 시복(諡福)·시성(諡聖)될 예정이다. 124위 순교자들의 숨결이 머물렀던 곳(묘지·순교지·감옥터·생가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내일 모레면 끝난다. 우리 교구에서도 지난 6월 1일에 ‘전주 옥터·전동성당·숲정이·치명자산·초남이·김제 성문밖·고창 개갑장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교회는 시복 조사가 시작된 사람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이들을 ‘가경자(可敬者)라고 불렀다. 우리 교구에서 순교한 분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라 불리는 이는 스물네 분이다. 이들 가운데 윤지충·권상연·유항검·유중철·이순이 등 다섯 분에 대한 시복 시성은 우리 교구가 1987년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지금 우리가 치명자산에서 볼 수 있는 기도문에 다섯 분이 거명되는 연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뒤로 한국 교회는 세 교구(전주, 서울, 수원)에서 추진하던 시복 시성 작업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였다.

경향잡지사는 ‘피묻은 쌍백합’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부부 순교사화집 제1권을 낸 바 있다(1958년). 그리고 호남교회사연구소(소장 김진소 신부)는 4년 전 순교자 성월에 이순이 루갈다 삼남매가 남긴 옥중편지를 현대문으로 잘 다듬어서 자그마한 책자로 펴냈다. 그런데 그 값진 책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반응은 전무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이런 참에

한겨레신문은 ‘아깝다 이책’이라는 꼭지에 그 책을 소개했다(2006.8.4).

기사를 대하자니 맘이 참으로 무거웠다.

요즈음 택시를 타고 ‘숲정이’에 가자고 하면 성지보다는 성당으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숲이 우거졌대서 ‘숲머리’ 또는 ‘숲정이’라고 부른다는 그곳, 지금은 나무숲이 아니라 아파트 숲이 들어섰다. 그런데 옛 지도를 보면 특이한 지명과 그림이 눈길을 끈다. ‘藪五里’(수오리)라 적혀 있고 숲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수(藪)’가 무슨 뜻인가 하여 옥편을 들춰보니 ‘초두 밑에 쓴 수(藪)’자는 ‘수’라 읽고, 그 뜻은 ‘숲’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것 등 배우고 맘써야 할 게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또 9월이다. “장하다 순교자” 하며 목청껏 ‘순교자 찬가’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올해 순교자 성월에는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 한 권쯤 구해서 읽으며 순교의 영성을 배우면 좋겠다.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도 빠트리지 말고.

한상갑(바오로)·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은 저의 하느님, 주님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소서. 주님께 은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여호 24,1-27,15-17,18ㄴㄷ

회답송 시편 34(33), 2-3, 16-17,18-19,20-21,22-23 (◎ 97)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 환호송 요한 6,63ㄷ,68ㄷ 참조

◎ 알렐루야

주님, 주님의 밑썸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밑썸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60-69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르나이다. 주님께서 는 땅에서 빵을 얻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내시나이다.

의지할곳 없는
어르신 75명의

편안한 안식처

소서를 하루 앞둔 녹음 짙은 여름날, 비구름에 장맛비가 오락가락 대지에 내리고 차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전주 시내에서 차량으로 20여분 소요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157-3번지에 위치한 '성 요셉동산 양로원'을 찾았을 때, 마침 산중턱에 걸터앉아 잠시 쉬고 있는, 하얀 뭉게구름이 조용히 내방객을 반기고 있었다.

마치 이곳 양로원을 감싸 안듯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산속에 한적하게 자리 잡은 성 요셉동산 양로원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진복팔단의 여덟 가지 참된 행복의 정신을 생활방식으로,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옛 경로 수녀회)에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하느님께 바쳐진 인생을, 가난한 노인을 위해서 그들의 자매가 되고,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뵈듯이,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남은 시간을 맡아 보살피고 있다.

이곳은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65세 이상의 소외된 생활보호대상 무의탁노인, 병중의 노인들을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돌보며 임종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전국에 4곳(수원, 서울, 담양, 전주)이 있으며,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여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다.

믿음 속에 피어난 사랑의 보금자리

이곳 성 요셉동산 양로원은 1998년 2월26일 노인복지 시설로 허가받고 같은 해 5월30일 준공하여, 성가정의 보호자, 노동자, 환자, 임종하는 자의 주보 성 요셉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다

75명의 형제, 자매노인 분들이 계시며,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이 주류를 이루고, 90세가 넘으신분들도 6분이나 계신다.

20여명의 수도자와 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 안에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며, 정해진 시간에 다함께 모여 매일미사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기쁨으로 생활하신다.

하얀 수도복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같이 자리한 계정애(폴렛파) 원장 수녀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분들을, 자연과 호흡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생활 속에, 진정 주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한다.”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정성과 애정,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길 부탁하였다.

자신의 미래를 돌보듯 기쁨으로 봉사하는 후원자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뜻있는 사람들의 모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쉼터에,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녀님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모금을 하기도 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의료, 이발, 목욕, 주방, 공예, 청소, 차량봉사 등 많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참여가 필요하다.

누구나 겪고 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어르신 분들의 깊게 패인 주름이, 향기로운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날 희망한다.

이원엽(유스티노)



호로비츠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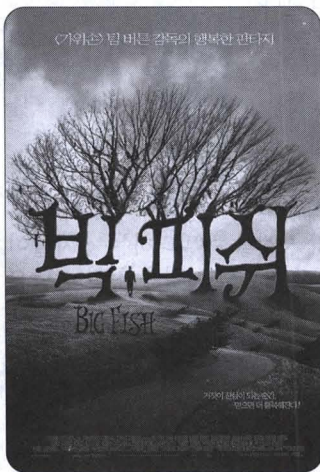
이기심을 넘어선 희생과 사랑 감동적

한국 | 드라마 | 108 분

호르비츠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었지만 가정 형편으로 유학이 좌절되면서 서울 변두리에서 피아노학원을 하는 교사와 부모 없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내맡겨진 아이가 만나 사제간의 애뜻한 정으로 서로간의 아픔을 치유해나가는 가슴 훈훈한 영화이다. 영화는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진정한 성장의 비밀은 이기심을 넘어선 '희생'과 '사랑'임을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다. 물론 영화는 그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선행들이 우리의 욕심인가, 아니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인가를 묻고 있다. 선행과 봉사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영화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본당 공동체가 함께 보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영화이다.



빅피쉬

밋밋한 삶에 신선한 활력 선사

미국 | 드라마, 판타지, 코미디 | 125 분

삶이란 단지 살아지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삶이 운택해질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영화 감독 팀 버튼의 독특한 이해를 담은 영화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일은 아버지 에드워드를 허풍장이라며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험담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듣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늘 "내가 왕년에~"로 시작되는 모험담이 허황되게 들려졌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엔 그런 아버지의 모험담이 무척 재밌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성장해서도 계속되는 아버지의 같은 이야기에 진력을 느끼고 아버지가 위선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 아

들이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증거를 찾으려 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실에 아버지가 하나하나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풍요로워 질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위손(1990년)>이란 영화를 제작했던 팀 버튼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장면 마다 아름다운 동화의 느낌과 따스한 영상미를 담아 보여주고 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평범하고 밋밋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신선한 활력을 준다. 삶은 평범하고 지루하고 고생스러운 것이기 보다는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만큼 우아하느냐에 따라 삶의 느낌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신앙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석이자 의미 부여이다. 믿는 자들은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똑같은 삶이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 풍부한 의미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꿈, 그리고 신앙의 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이다.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

기도 · 선교 · 봉사

‘숲정이’는 ‘본당탐방’ 코너를 신설, 매월 한차례씩 교구내 본당 한곳씩을 선정해 소개한다. 이 코너를 통해 본당의 발자취, 교세현황, 제단체 활동, 사목 방향 등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며 이웃 본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 삼례 성당의 발자취 ◆

삼례 성당의 뿌리는 1902년 신왕리 공소로 1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51년 익산 창인동 성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을 설립하고 5칸 건물을 본당과 사무실로 사용하다 1955년 8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61번지에 지금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지금은 신자수 1773명으로 8개구역 34반의 큰 공동체로 성장하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성경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전주시와 익산시의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의 합류점 같은 곳으로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 있어 여기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농사일을 하는 신자등 신자층이 고르지 못하고 평균 연령층도 높아 사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공동체답게 구교 신자들의 깊은 신앙심은 비록 재정적으로나 배움으로나 뒤질지는 몰라도 열여덟 분의 신부님을 모셔오며 ‘기도’와 ‘봉사’의 튼튼한 두 기둥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살아 있는 공동체이다.



이재후 주임신부

◆ 기도하는 공동체 ◆

2001년 8월에 취임하신 이재후 신부님은 가시는 본당마다 성당의 문을 24시간 활짝 열어놓으셨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목말라하는 신자들이 언제든 와서 영적으로 편히 쉬게 하려는 배려에서이다. 그래서 새벽4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느님 사랑을 찾아 성당으로 향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교우들의 깊은 신심은 무엇보다도 성체 신심이 돋보이신 이재후 신부님에게서 비롯된다. 본당의 큰 신심단체인 성체 조배회는 매월 두번(마지막 금요일, 셋째주 월요일)정기적으로 신부님 특강을 통해 은총의 단비를 맞아가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드리며 하느님 사랑을 고백하고 목요일마다 성체강복을 통해 성체신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신부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도의 생활화’ 역시 매일미사 40분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손수 모범을 보이신다. 미사시작 30분전에는 공동체가 삼중기도와 함께 늘 전례력에 맞는 기도를 바친다 하니 삼례본당은 기도의 씨실과 날실로 짜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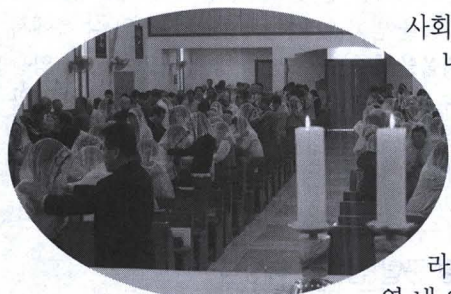
◆ 활발한 노인 사목 ◆

고령화된 본당 특성상 홀몸 노인들이 많고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하여서라도 성당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재후 신부님은 올 봄 큰 선물을 준비하셨다. ‘어르신 성경학교’를 신설하여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영적양식으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4개반 80여명의 어르신들께 ‘새로나는 성경공부’ 교재일체를 선물하셨다. 어르신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학교에서 ‘말씀’에 맞들이며 노후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고 계절별로 실시되는 효도관광과 함께 신부님과 젊은 신자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다. 신부님의 성경에 대한 열정은 일반 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한내골 성경공부’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있다.

◆ 선교하는 공동체 ◆

본당을 이끌어가는 여러 단체 중 본당의 애·경사에 몸을 아끼지 않고 구석구석 곳곳을 도맡아 하는 ‘마르타 봉

신앙의 불길 활활



사회'는 본당의 여러 기둥 중 단연 돋보인다. 본당의 큰 행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초상 때마다 본당 강당에 상가를 차리고 음식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위령성월마다 매일 바쳐 잘 하기로 소문난 연도를 본당내 상가에서 모든 교우들이 끊이지 않게 바쳐드리고 또한 마르타 봉사회에서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은 맛과 양에서 뛰어나니 이래저래 상가를 찾는 외인들에게 선교의 독특한 몫을 다 하고 있는 셈이다. 2004년 마르타 봉사회는 그 이익금으로 암반150m에 지하수를 뚫어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활 때마다 부활계란을 구역 내 인근병원 모든 입원 환자에게 천주교 소개 책자와 함께 전달하니 관할구역내의 12개 개신교와 원불교등 5000여명의 타종교 신자들에게도 선교의 모범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회를 놓쳐 조당 중에 있는 젊은 신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를 찾는 젊은 부부들을 면담하여 100여명의 젊은 신자들의 조당을 해소 해 줄 정도로 구석구석 교우들의 신앙을 살펴 주신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틀린 곳은 꼭 챙겨서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해 주시는 신부님의 강론말씀과 외부강사 없이 직접 준비해서 들려주시는 특강으로 교우들은 늘 새로운 영적 힘을 얻고 있다고 신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 봉사하는 공동체 ◆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이 많으신 신부님의 이웃사랑은 삼례 본당 사목에도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불우이웃에 반찬을 준비해주고 홀몸노인을 방문하며 복지시설인 '천사의 집' 과 팔복동 '사랑의 집' 에 후원하고 있다. 특히 무연고 노인 30여명을 모시고 있는 '빈첸시오의 집' 에 신부님은 초대 원장이시고 본당 빈첸시오 회원들은 2주에 한번 청소, 목욕, 빨래등 정기적으로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마르타봉사회의 이익금은 '빈첸시오의 집' 에 큰 버팀목이 되 주고 있으니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본당 공동체의 바람 ◆

“가족 같은 사랑으로 신자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신자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 소외되지 말아야지요.” 신자들에 대한 이재후 신부님의 사랑은 신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시며 자주 불러주시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얼마 전부터 전 신자들은 이름표를 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면 꼭 이름을 불러가며 친교와 일치를 나눈다. 미사를 마치고 모든 신자들이 성당 문을 나설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른다. 검소한 사제 이재후 신부님의 낡은 사제관에는 에어컨이 없다. 신부님 스스로 외식을 삼가고 검소하게 지내시니 낭비하는 신자가 있을 리 없다. 소박한 삼례공동체에는 큰 바람이 있는데 바로 '교육문화회관' 건립이다. 성당과 수녀원의 노후와 화재로 인해 부실한 사제관도 문제이지만 신자들의 결혼 및 장례, 각종 교육을 위해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시급하게 필요하며 또한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할 복지회관도 필요하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하는 삼례공동체의 바람을 하느님께서 꼭 들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늘 기도과 이웃 사랑으로 소박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삼례공동체의 모습 안에 바로 하느님 나라가 함께 있음을 느껴본다.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삼례 성당

성령 묵상회 7주간
8월 28일부터 매주(월) 오후 7시 30분

◆송천동 성당

에니어그램 강의
8월 26일(토)~27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성당

제12기 자원봉사자 학교
9월 4일(월)~10월 23일(월) 매주 월 오후 2시

◆마동 성당

성령묵상회
9월 4일(월)~9일(토) 오후 7시 30분

◆삼천동 성당

성서교실 : 9월 1일(금) 매주 금 오전 11시

◆창인동 성당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모집
접수기간 : 9월 30일(토) 까지

●삼례 성당 성령기도회 특강

삼례 성당(주임=이재후)은 지난 8월 21일(월) 안한운 소 화데레사를 초청 성령기도회 특강을 가졌다.

8월 28일부터(매주 월) 7주간에 걸쳐 진행될 성령묵상 회를 앞두고 안한운(소화데레사)는 “삼례 성당은 신부님 열정도 대단하시지만 남자 교우분들의 참석이 많아 타 본당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 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 란다.”고 하며 성령봉사자로서 자신의 신앙간증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은총의 특강을 하였다.

[최경호 기자]

●도통동 성당 종탑 십자가 축성식

남원 도통동 성 당(주임=김희태 신부) 신축성당 에 안착될 종탑 십자가 2개가 지난 8월 13일 (주일) 교중미사 후 교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성되고 안착 되었다.



특히 임순남무진장 지구장 박성팔 신부님과 본당 신 부님의 축성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16년 동안 씁없이 달려온 도통동 성당 공동체에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하 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풍선을 안착 과 동시에 하늘로 높이 띄웠다.

도통동 성당 교우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성전 봉헌식까 지 형제적 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신앙의 공동체를 지향 하며 성전신축을 위한 100만단 묵주기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송향순 기자]

● 대야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지난 8월 20일(주일) 대야 성당(주임=성태수 신부)는 본 당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1부행사는 미사 전 전신자가 한자리에 모여 하정호, 최영희 부부와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가 되었다.

2부행사는 주임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 하였다.

이 날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아 본당출신 사제 4명 중 3명, 수도자 1명이 참석, 미사를 봉헌하는 뜻깊은 자 리를 만들었다. 강론을 통하여 50년 전만 해도 지방에 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렇게 본당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서 우 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자고 하였다. 3부행 사로 나눔잔치와 친교 마당을 갖고 행운권 추첨과 주임 신부의 마침기도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김영수 기자]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정영주(요셉파)

대청형문병 전문병원
장 문 외 과
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유* 사 랑 외 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 · 재혼)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전북 방사선과.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암검진)
CT / 초음파 / 유방 / 갑상선 검사
효자동 국민은행 3층(228-6060)
원장 : 임여선(루치아), 송하숙(야고보)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윤달 삼배자수 수의
- 맞춤 삼배 면실자수 수의
- 주문 후 24시간 이내 제작 배달
- 명정,관보,여성복,완장,두건,행전(무료제공)
주문전화(무료) 080-481-1004
휴대폰 주문 019-419-9312
이원균(미오나시오) 김태숙(멜라네타)
실버천사마을 작은 센터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칼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아나타시아)
원장 :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이병호주교와 평신도 대표 간담회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 지도=조정오 총대리 신부)는 8월 15일 전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교구 내 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목국장 김광태 신부가 배석하고 교구 내 제 단체 대표와 평협 각 지구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2007년도 사목교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여론 수렴을 위해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뜻에 따라 갖게 되었다.

서동호 평협회장 사회로 시작기도와 주교님 인사, 제 단체장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제 단체장들의 각 단체들의 활동상황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보고, 더욱 활성화 된 단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문제점 등을 교구에 건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전주교구 발전의 큰 틀은 2000 대희년 사목교서에 이미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 날 수 없지만 우리 교구의 획기적인 사건인 교구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그에 맞는 사목교서로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2000년에 로마에서 있었던 아시아 주교 대의원회의 때 교회의 미래가 아시아에 달려 있음에 확인하고 제가 발표한 내용 중 평신도 각자의 고유한 크리스마, 즉 은사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도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관영 기자

● 순창 복흥 공소 어린이집 보수 기금 마련 바자회



순창 성당 송호석신부와 교구 농촌사목 전담 박동진 신부, '사랑 짓는 요십이'(지도=김봉술 신부, 회장=박종구)회원들은 지난 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순창 복흥 공소 어린이 집 보수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삼복더위를 가장 보람 있게 지냈다.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붕 천장을 걷어내고 지붕 틀을 보강 한 뒤, 다시 천장을 설치하고 내부 도배와 화장실 정비, 비품 설치와 정리, 그리고 비좁은 주방을 밖으로 증축하는 공사 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마무리 하였다.

또한 철저한 폐자재 등은 환경 보호를 위하여 여러 회원들이 직접 나서 분리한 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다.

여기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힘을 합치고 사랑 짓는 요십이, 청년 예수회 등 여러 회원들의 노력과 봉사, 뜻있는 분들의 협조로 어렵게 7, 8월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8월17~19일에는 치명자산에서 호프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수 기자

● 나운 2동 성당 복사단 하계 단합대회

군산 나운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지난 8월 14일 (월)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하며 복사단 하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더운 날씨와 장시간의 산행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일행이 하나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이임을 며칠 앞둔 본당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복사단을 배려하시는 신부님의 사랑 속에서 어린이들이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오라 기자

<p>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p>	<p>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응급전화 : 016-335-8175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p>	<p>2006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성악 아카데미 (9.4~12.16) 15주과정 성악전담교수 김석원(시몬) 문의 : 220-2642~5, 011-680-6575 http://conedu.jj.kr</p>
<p>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 (063)275-5760</p>	<p>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p>	<p>해외이민, 국제결혼수속, 중국교포초청, 영문·일본어 번역 문의 : (063)445-5226, 2276 FAX : (063) 443-3277 이태교(임마누엘) 김순자(프란체스카) 범흥이주공사 군산지사</p>	<p>꽃동네설립 30주년 기념 및 꽃동네사랑의영성원 준공식 일시 :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잔디광장 준비물 : 도사탁, 사제단(장백)떡과음료제공 문의 : 043-8790-100, 02-2272-0101</p>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 수녀원 세미나
8월 28일(월), 31일(목) 오후 2시 용인수련원
- 가톨릭 센터 신축회의
8월 29일(화) 오후 2시
- 성요셉동산 앙로원 수도회 창립자 축일미사
8월 30일(수) 오전 11시
- 광주신학교 신입교수 연수
9월 1일(금)~2일(토)
- 성모요양원 축복식
9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 견진
9월 3일(주일) 오전 10시 월명동

미사 · 행사 · 모임

- 전주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8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사목국 소공동체 전국모임
8월 28일(월)~30일(수) 대전정하상 교육관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주교구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 미사
8월 28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성바로 복지병원후원회 월례강의 미사
8월 28일(월) 오후 2시 성바로 복지병원 차량은행 : 중앙성당 앞
1차 낮12시, 2차 오후 1시 20분
- 가정방문실 미사
8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 군산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8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가정 상담 봉사자학교 2학기 개강
8월 31일(목) 오후 2시
(* 1학기 오후 2시 30분에서 2시로 변경됨)
- 38차 선택수강자 재모임
9월 2일(토) 센터
- 성모기사회 모임
9월 2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포콜라레 모임
9월 3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교육관
- 군산 하나회 미사
9월 3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가톨릭문우회
9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센터
영화감상(제3의 사나이)
- 청년성서 38차 탈출기 연수생 재모임
9월 3일(주일) 센터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8월 28일(월) 시가동
- 본당 가정분과 · 여성분과 위원 교육2차
9월 3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가톨릭신학원 2학기 개강일시
교리교육과 1학년 : 8월 30일(수) 오전 10시,
2학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신앙연수와 1학년 : 8월 30일(수) 오후 7시,
2학년 8월 28일(월) 오후 7시
성서교육과 1학년 : 8월 29일(화) 오전 10시,
2학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성서연수와 전주본원(주/야간) :
8월 31일(목) 오전 10시, 오후 7시
군산본원 8월 28일(월) 오전 10시 나운동
익산본원 8월 28일(월) 오전 10시 창인동
남원본원 8월 31일(목) 오전 10시 쌍교동
등록금 2학기 납부 안내
납부기간 : 7월 10일~8월 25일
납부방법 : 신학원 행정실 또는 무통장 입금
전북은행 505-13-0317359(계)천주교유지재단
무통장 입금시 학과, 학년, 학생 이름 기재

기타

- 천호 토마스 쉼터 피정
개인피정 : 방4개, 공동피정 : 30명 가능
가족피정 : 가족방 6개
위치 :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808-14
문의 : 063-262-6339, 016-233-9001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쌍백합'에 1,250,000원 후원해 주신 서신동 성당 신부님 및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성동(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남골당을 분양합니다.
남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제2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학교 신청 안내
기간 : 9월 4일~10월 23일(매주 월) 오후 2시
대상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장소 : 군산나운동성당 교육관
모집인원 : 선착순 70명
교육비 : 3만원(교재제공)
입금은행 : 예금주-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은행 511-13-0312265
※ 신청이름과 송금인명이 같게 해주세요,
다들 경우는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신청마감 : 8월30일까지
문의 : 284-5290, FAX 284-4855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http://j catholic.or.kr
(사회사목국자료마당 참조)

좋은 영화-아일랜드

8월



일시 : 8월 30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35 분
관람비 : 천원

전 인류가 흥분한 최고의 화제 '인간복제'

이제, 거대한 미래가 다시 창조된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빛어진 현상! 이 새로운 세계 안에서 찾아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서 과연 진실과 사랑, 평화, 자유를 찾아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진다.

거룩한 말씀의회 성소모임

일시 : 9월 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대전 본원
문의 : 011-9404-5637
김 사베리아 수녀
주제 : 제자가 되는 길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일시: 9월 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011-9319-1690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아동입양 및 후원상담
문의 : 02-764-4741
www.holyfcac.or.kr / www.성가정입양원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모임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일반 성소자 모임

일시: 9월 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전주 복자성당 수녀원
문의: 042-253-6300, 010-4761-9217
비고: 수시 상담 가능 02-707-5511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 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면 후
 F A X: 563-1782

1.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수입: 이종태 50만원, 김점동 30만원, 조성욱 10만원, 총신입액-141세대 5,328만원 총납입액-4,916만원 ※ 많은 신입 바랍니다.
 2. 레지오 단원 교육: 28일(월) - 시가동성당 오후6시30분출발
 3. 전신자 성지순례: 9월 9일(토) 연풍성지 참가비 15,000원
 접수 - 사무실 9월입일까지 4. 주일학교 개학: 9월2일(토)후3시
 5. 주일학교 차량봉사자 모집: 매주(토)후1시50분~2시30분
 후4시40분~5시20분 6. 금주모임: 꾸리아, 임마누엘회(야외회) - 공식미사 후
 7. 다음주모임: 아브라함회, 제대회 - 공식미사 후
 8. 다음주전례: 전례 - 은희태, 김영숙 독서 - 정재운, 정정순
 복사 - 김점동, 한재근
- 지난주 봉헌금: 1,118,900원 ■ 교무금: 1,633,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 원 중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 환영합니다!! 김원중(안토니오)본당신부님.....
- ◎ 교구청사 신축헌금과 본당개보수 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사랑하올모친, 예언자의모후 꾸리아: 교중미사 후
 2. 사목회: 3일(주일)교중미사 후
 3. 신축헌금누계: 217,868,000원 입금누계: 138,240,270원
 4. 금주청소: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1,567,000원 ■ 교무금: 1,200,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본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최 월 일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 9월중 미사는 단원 양식으로 봉헌합니다.
1. 후반기 레지오단원 교육: 일사 - 8월 28일(월) 19시 ~ 21시 30분
 장소 - 경규동(가브리엘) 신부님 2. 성모월애세례를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교우를 많이 인도합니다. ※ 예비자 교리사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후 8시, 일요일 오후 5시(청소년부) 3. 주일 차량 봉사자
 모집합니다. ※ 버스 운행(대형 면허 소지자) 승합차 운행(중형 면허 소지자)
 4. 금주모임: 아브라함회, 베드로회(8/27 교중미사 후), 성심회(9/1일 9시
 동아리) 꾸리아(9/2 토 14시)
 5. 금주전례: 해설 - 하선남(베레나) 독서 - 이상만(요셉), 임금순(골롬바)
 6. 금주청사: 천주 - 성모(8/29 화), 승리의 왕(9/2 토)
 - 지난주 봉헌금: 1,468,700원 ■ 교무금: 1,202,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588,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정 신
 F A X: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김 인 권

1. 이번주 성서: 창세기 9장
2. 금주모임 ① L.M 꾸리아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구역(반)회장 모임 - 9월 1일(금) 미사 후
3. 신평공소 미사: 9월 2일(토) 후8시 (본당출발 후7시 30분)
4. 여성분과 피정: 9월 7일(목) "천호피정의 집" 신청-사무실
5. 감사헌금: 이미지(마리아), 익명 각100,000원
6. 차주모임: 아브라함회
- 지난주 봉헌금: 1,336,000원 ■ 교무금: 1,657,000원
- 센터신축헌금: 2,115,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중 신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자 옥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1. 전신자 성경 공부: 탈출기 31장 ~ 40장(꼭 읽고 오세요)
2. 센터 신축 2차 헌금: 오늘
3. 성경기방 스폰서: 신부님 대건회 엠마우스회 안나회, 제대회
 최정순 박인식, 최문규-각10만, 최호순, 박재현, 정원식, 이인영, 추일호,
 한상설, 최정만-각5만, 사목회장-15만, 연영희-30만, 꼬미시움-120만
4. 초 중 고 여름신앙학교 스폰서: 안나회 성모회, 장정숙, 제대회, 술정희,
 최정만-각10만, 김중범-5만, 대건회, 엠마우스회, 마르타회-각20만
5. 센터 신축헌금: 정준현-50만, 김성재, 박근-각2만, 김갑기-90만
6. 감사헌금: 임정환-10만, 박규현-5만, 익명-11만
7. 감사: 중고 복사기 기증 - 신협
8. 금주모임 ① 여성 단체장-교중미사 후 ② 안나회-1일(금)
- 지난주 봉헌금: 1,540,300원 ■ 교무금: 2,065,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자 옥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1.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공소미사: 만석 - 오늘 오후 3시
3. 9월 차량봉사자: 한옥숙, 채정숙, 김영남
4. 수녀원미사: 30일(수) 오전 6시(본당에서는 미사없음)
5. 교리교사회: 31일(목) 미사 후
6. 주일학교 개학: 9월 2일(토) 오후 4시 교리, 5시 미사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 현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 "희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15,13)
1. 금주: 꾸리아 - 교중미사 후
 2. 차주 ① 성전건축2차헌금 ② 친교주일(식사-) ③ 첫주일 제모임
 3. 특별헌금: 익명-1백만, 장광수- 257천 ※감사합니다.
 4. 금주전례: 해설- 이복철, 독서- 양해진, 이정숙
 5. 차주전례: 해설- 양희정, 독서- 최병순, 문명선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범 신 배
 F A X: 544-5652 서목회장: 손 영 말

1. 오늘모임: 꾸리아 - 공식미사 후.
 2. 다음주일 모임: 성모회 - 공식미사 후.
 3. 구장공소미사: 9월 3일(주일) 오후 3시
 4. 오늘: 해설 - 문재현, 독서 - 조상선, 이금자.
 봉헌 - 배인수 부부.
 5. 다음주일: 해설 - 정준환, 독서 - 강경복, 강기순.
 봉헌 - 서용식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0,800원 ■ 교무금: 50,000원

신 태 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찬 주

- ◎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28일): 축하식은 오늘 공식미사중
 ※ 본당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1. 금주모임: 성심회, 사목회-9월 2일(토) 후7시30분
 2. 차주모임: 꾸리아-3일(주일) 전9시, 올드레이-9일(토) 후8시
 3. 공소 미사: 태인-30일(수), 종산-31일(목), 후7시30분
 4. 성체 강복: 9월 1일(금) 저녁미사 후
 5. 병자 봉성체: 9월 1일(금) 오전 중
 6. 전신자 성지순례: 9월 17일(주일), 장소-미리내 성지
 ※ 구역별, 공소별로 신청 받습니다. 회비-1만
 7. 오늘은 애령회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97,600원 ■ 교무금: 2,380,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김 태 술

- ◎ 이동(아우구스티노)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 간에 건강을 빕니다.
 교중 미사 후 축하식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들과 식사 있습니다.
1. 금주모임: 꾸리아 2. 차주모임: 성모회, 화석회, 대건회, 사목회(토)
 3. 공소미사: 차주-용지, 외동 4. 본당미사 칠레공소: 용지 차주 - 신암
 5. 복사단 입단식: 9월 3일 교중 미사중
 6. 감사헌금: 한경화-오만원, 장정숙-일식팔만원, 김기조-쌀40kg
 이수영-아이스바 200개 ※ 감사합니다.
 7. 성당청소: 6구역 차주 - 7구역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지난주봉헌-405,000원 누계-48,661,000원
 *신축헌금 납입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82,800원 ■ 교무금: 900,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최 석 기

1. 금주모임: 구역장월례회(8/27) 사목회(9/1금)
2. 차주모임: 9월2일(토)부터 초 중등부교리(토요일2시30분) 및 미사(토요일4시)
 가 종전대로 실시하오니 신자여러분(특히하부모집)들의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꾸리아(9/3), 성체강복(9/7목), 환자봉성체(9/8금) 방학동안에
 본당 학생지도와 행사협조로 수고하신 유승현(마리오)신학생께 감사드리며,
 학교생활동안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신자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순환차운행 봉사자: 금주-서만식(다미아노) 차주-김중운(베드로)
4. 금주전례: 해설-강단구 독서-유 정, 이명란 봉헌-이금레가족
5. 차주전례: 해설-최석기 독서-박명환, 이영자 봉헌-양혜승가족
6. 성당청소: 금구, 봉남 구역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633,500원 ■ 교무금: 130,000원

7. 사목회: 9월 3일(일) 공식미사 후
8. 감사헌금: 익명 30만
9. 미사안도: 금주 - 이순옥, 허인순, 차주 - 유란순, 이선녀
10. 금주전례: 해설 - 김영남, 독서 - 조팔남, 이종미, 봉헌 - 김민수 부부
11. 차주전례: 해설 - 최준석, 독서 - 임순선, 이정숙, 봉헌 - 문장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38,000원 ■ 교무금: 21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8월 19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나바위, 고산, 인후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신흥, 나운 2동, 금암동, 중앙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월명동, 용안, 복자, 대야,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소양, 숲정이, 서신동, 영등동, 영등소리, 신동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722,337	44.82%
사제단	1,000,000	989,784	98.98%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44,719	36.31%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8,478,648	47.10%



사진 : 강택수(안사노)

사진묵상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코헬렛 1,3-6〉